

새로 나온 詩集

없어졌다

高永祚 지음

제1회 「동서문학」 신인상을 수상하면서 문단에 데뷔한 시인의 첫시집 『貴峴里』에 이은 제2시집.

“말과 말 사이 / 물타르를 비벼 넣어 / 다시는 떨어져서 헤어지는 일 없게 / 쓰윽 씩 씩 씩 있게 칼질하며 // 담장을 쌓는다”(「미장공」 중)와 같이 시 혹은 시쓰기에 대한 메타시를 비롯해 간결하고 절제된 언어의 유기적 조합을 중요시하는 시인의 독특한 시작법이 눈길을 끈다. 권말에 시인 오세영씨의 해설을 함께 수록.

문학세계사 / B6신 / 124면 / 2400원

빈 집

이효윤 지음

1980년 「현대문학」으로 등단, 민족문학 작가회의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시인의 첫시집.

데뷔작인 「빈 집」 연작시 11편을 포함해 총 66편을 3부로 나누어 묶었는데 “안빈낙도 하리라 걱정했지만 / 막상에 가난하니 그제 안되네 / ...부짓집 담 밑에 쌓인 곡식은 / 들 사람들 보기에 좋을 뿐이네”와 같이 시집 전반에 깔려 있는 시인의 가난했던 삶의 역정이 잔잔한 감동을 준다. 권말에 시인 고희렬씨의 발문을 함께 수록.

밝은책 / B6신 / 120면 / 2500원

신보릿고개

김시현 지음

「나래문학」동인으로 활동중인 시인의 첫시집 「쇠달구지의 노래」에 이은 제2시집.

택시운전기사로서의 현장체험을 바탕으로 ‘보통사람’들의 희망사항을 고발문학 형식으로 담아낸 76편의 시들을 선보이고 있는데 “노동 현장문학을 대중적 참여의식으로 형상화시켜 봤고 약육강식처럼 잘못 되어온 한국형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과 자본가의 폐해성을 우스꽝스럽게 각색해왔다”는 것이 시인의 말.

시인사 / B6신 / 104면 / 2500원

민들레야 민들레야

陳東奎 지음

1978년 「시와 의식」에 작품을 발표하면서 시작활동을 시작한 시인의 제2시집.

「전라도 기행」, 「完山城 밖 호리꾼 이야기」 등의 연작시를 비롯해 시인의 역사의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주는 ‘민중적 음악성’이 돋보이는 61편의 시편들을 수록했다.

향토적, 家史的 소재에 대한 “치밀한 관찰과 조형의 의지에 시인의 리얼리즘의 의지가 강하게 버티고 있”다는 것이 평론가 이보영씨의 평.

문학세계사 / B6신 / 104면 / 2400원

오늘 내 서툰 시가 한 봉지 라면이라면 좋겠다

김중식 외 지음

시·소설·평론·영화·연극 등 문학과 예술 제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30여명의 젊은이들에 의해 1988년 결성된 창작집단 「예술운동」의 시분과원 동인시집.

김중식·손현철·심창만·이광표·이명찬·이병동·조철우 등 등단했거나 습작기에 있는 7인의 시 66편을 수록했는데 ‘주변’과 ‘시대’에 대한 젊은이다운 이품과 애정, 그리고 신선함을 느낄 수 있다.

청담사 / B6신 / 150면 / 2500원

춤추는 파도

金正三 지음

가난과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철저한 시정신으로 많은 작품을 발표하고 있는 시인의 일곱번째 시집.

“온몸에 휘감긴 / 가난을 툭질하고 / 굳어버린 핏줄 / 恨으로 뚫는다 // 뼈마디 붙잡고 / 발버둥 쳐봐도 / 멀어지는 눈과 귀”(「꿈길」 중)와 같이 삶에 대한 절망의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도시와 현대문명에 대한 비판을 통해 역설적인 삶의 의지를 엿보게 한다. 73편의 시들을 2부로 묶었는데, 시인의 詩作노트를 함께 수록했다.

영언문화사 / B6신 / 142면 / 2300원

별들은 따뜻하다

정호승 지음

대한일보 신춘문예(1973)로 등단한 이래 「슬픔이 기쁨에게」, 「서울의 예수」, 「새벽편지」 등의 시집을 출간한 바 있는 시인의 신작시집. 간결한 잠언풍의 고어형 시어와 전통 서정미로 많은 독자를 갖고 있는 시인의 이번 시집에서는 ‘무덤’ 이미지를 중심으로 세속인

들을 ‘살아있는 주검’으로 묘사하는 한편, 욕망·이기심·분파주의·반인간주의 등을 극복하는 ‘진정한 죽음’에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60편의 시들을 3부로 나누어 묶고 권말에 시인 이동순씨의 발문을 함께 수록.

창작과비평사 / B6신 / 108면 / 2500원

작은 사랑의 노래

김대규 지음

「젊은이여 사랑을 이야기하자」, 「사랑의 광세」, 「별이 별에게」 등 일련의 ‘사랑 아포리즘’으로 우리에게 친숙해진 시인의 또 하나의 사랑시집.

올해로 30년째를 맞는 시인의 문학생활을 정리해보려는 뜻에서 “아포리즘적 발상법에 시적 요소를 가미시켜 短詩로서의 색다른 면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것이 시인의 말. 총 120편의 시들을 ‘너,너,너’ ‘사랑의 열쇠를 드립니다’ ‘목각인형의 사랑노래는 슬프다’ ‘희미한 옛 사랑의 그림자’ ‘사랑은 외로운 떠돌이별’ ‘그래도 사랑하리라’의 6부로 나누어 묶었다.

한겨레 / B6신 / 146면 / 2000원

무등산 너덜경

文道采 지음

「시문학」(1969)으로 등단한 이래 「쌈지」, 「처음 써보는 사랑의 시」, 「남도 연가」, 「달력을 넘기면서」 등의 시집을 펴낸 바 있는 시인의 제5시집.

詩歷 47년째를 맞는 시인의 세상살이에 대한 묵직한 포용력이 전편에 흐르고 있는데 고향과 가족, 그리고 그간 몸담아온 교육현장의 모습을 담은 74편의 시들을 선보이고 있다. “시적 정조가 근본적으로 사랑의 조화로움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이 시인 최하림씨의 평.

문학세계사 / B6신 / 118면 / 2400원

돈의 얼굴을 새로 그리자

원석 지음

서울보건전문대학 윤리교육 강사로 출강중인 아마추어 시인의 첫시집.

“이제부터 지폐에서 / ... 성인들의 초상은 지우자 / 그 대신 돼지를 그리자 / ... 그리하여 / 비뚤어지게 벌고 / 더럽게 쓰는 손들이 / 털난 모습임을 / 스스로 조금은 깨닫게 해주자”는 표제시를 비롯해 달동네, 청량리, 지하도

로 상징되는 도시의 소외된 삶을 풍자하는 한편 평범한 생활의 단면들을 담담히 묘사, 신선다운 신선함을 느끼게 한다.

작은우리 / B6신 / 134면 / 2000원

그래도 꿈꾸어야 한다

尹貞淑 지음

「시문학」추천으로 등단, 부산에서 활동중인 시인의 첫시집.

삶의 조건이나 세계에 대한 비판보다는 존재에 대한 방법론적 물음을 통해 자연과 인간에 대한 믿음을 황폐화시키고 있는 것이 삶의 현상임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름」 연작시 25편을 비롯해 68편의 시편들을 ‘그래도 꿈꾸어야 한다’ ‘표적찾기’ ‘가을배 앓이’ ‘이름’의 4부로 묶었다. 권말에 평론가 민병욱씨의 해설을 함께 수록.

문학세계사 / B6신 / 118면 / 2400원

칸토스

에즈라 파운드 지음 / 이일환 옮김

‘이미지즘’의 주창자로 20세기 현대시사에서 가장 뛰어난 시인으로 평가받는 시인의 대표작 「칸토스」 117편 중 34편을 번역했다.

40여년에 걸친 필생의 역작인 이들 시편들은 현대문명과 자본주의 체제, 마르크스즘 모두를 비판하면서 시인 자신을 이상향을 찾아 방황하는 오딧세우스로 비유하고 이미지즘 시학과 중세 유럽 및 한시를 조화시켜 독특한 시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권말에 옮긴이인 영문학자 이일환씨의 해설을 함께 수록했다.

문학과지성사 / B6신 / 310면 / 4500원

출판저널 정기구독안내

10개월20호분·값18000원
전화문의: 732-1431~3